

북한개발소식

2022 MAY

05

통권 199호

이달의 주제

통일과 북한선교

북한뉴스

북,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전술핵 탑재 가능 언급에 주목

서평

북한여성, 변화를 이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고찰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2 MAY



이달의 주제 :

통일과 북한선교

- 권두칼럼 **01**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고찰
- 칼럼_1 **09** 유관지_ 통일과 북한선교, 전환점이 필요하다
- 칼럼_2 **17** 성훈경_ 나의 정체성 - 나는 북한선교 사역자입니다.
- 칼럼_3 **22** 오픈도어 현장사역자_ 北中 국경에서 바라본 통일
- 북한뉴스 **29** 북,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전술핵 탑재 가능 언급에 주목 외
- 서평 **35** 북한여성, 변화를 이끌다
- 북한 기도 제목 **38**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보가 심상치 않다.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은 물론이고 핵실험 재개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행보는 당연하게도 동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몇 년 전 유래 없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것이 무색한 모습이다. 계속된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분단 상황과 매체를 장식하는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적 이슈들은 과연 ‘통일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실제로 서울대 통일외교연구소가 2021년에 따르면 통일을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4.6%로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았던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가장 높았다.¹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최근 4년간 약 32-38%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등의 순이었다.² 분단 이후 최근까지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와 같이 우리에게 통일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노래가 전처럼 의미 있게 불리지 않는 듯하다. 분단 장기화에 따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집중하는 가운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각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통일에 대해 접근할 때 민족에 대한 강조가 아닌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관련 연구의 한 예라고

1 김범수 외, 『2021 통일외교연구소』 (시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p 30-31.

2 위의 책, pp 41-43

볼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감수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들과 통일로 인한 장기적인 이득을 생각해 보았을 때 통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충분히 감당 가능할 뿐 아니라 훨씬 더 크다는, 다시 말해 통일은 실용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간의 대화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의미 있게 이어지지 못하고 최근에는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어가니 사람들의 귀에 통일은 점점 더 먼 이야기로 들리는 듯하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가진 통일의 비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북한 선교를 생각할 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점검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통일과 관련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교회가 바라보는 통일

한국 교회는 오랜 기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통일 역시 자연스럽게 교회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그렇지만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교회에서 ‘민족’이나 ‘통일’은 대표기도 때나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가는 듯하다.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의 회의적 분위기가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진보적인 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통일의 의미와 필요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정종기 고신통일연구원 원장은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통일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과 그 바탕이 되는 성경적 배경을 크게 6가지 테마로 정리했다. 즉 화해와 용서, 통일, 하나됨, 희년, 가난한자, 그리고 살롬이 그것이다.³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해와 용서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통일에 대한 성경적 해석 중 하나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됨,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해석도 있다. 50년을 기준으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희년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기도 한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반도에 투영하여 북한의 억눌림을 해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 살롬을 이루어가기 위해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경적인 접근은 분명히 우리에게 통일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한반도에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구절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

³ 정종기, 『통일목회를 위한 디딤돌 - 통일신학의 이해』 (서울:청미디어, 2016) pp 130-158.

게 통일은 숙명적으로 주어진 숙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특정 구절로 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과 북한선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이 글에서 필자는 선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대위임령을 따라, 또한 시대적으로 허락된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따라 복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를 앞에 두고 통일과 연관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선교의 관점에서 통일은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자유롭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며 복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북한선교현장에는 매우 많은 제약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근래에 주요 선교지역인 창의적 접근지역 대부분이 선교에 장애가 많지만 북한 선교 현장은 특별히 분단 상황과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예를 들어 북한 선교는 사역 대상국에 방문도 할 수 없어 인접국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상당하다. 선교사나 현지사역자, 그리고 복음을 받는 북한 사람 모두 추방이나 강제복송의 위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한다.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이방인 된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움과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 이렇게 선교를 제한



하는 무수한 걸림돌들을 마주하게 될 때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종 복녘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실종이나 체포, 순교의 소식은 하루속히 통일의 그 날이 오기를 바라고 한다.

그렇지만 남한 교회 안에서는 통일과 북한선교가 서로 부정적 관계로 이해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하게 된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매우 폐쇄적이고 선교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보는 이들도 있고, 현 시점에서 국경 지역 등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 받는 이들의 신변을 위태롭게 하고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도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양해야 할 선교 방식이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

는 이들도 있다. 현 시점에 무리해서 북한 선교를 하기 보다는 먼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선교는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선교활동이 북한 당국을 자극하여 통일을 위한 화해와 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통일과 북한선교가 어느 정도 반대되는 가치이거나 충돌하는 목표로 인식되는 것이다. 통일과 북한선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북한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통일과 북한선교가 부정적 관계인 듯이 이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북한 선교 환경의 위험함과 열악함으로 인한 회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란 항상 난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을 본다.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선교사와 초기 신앙인들의 역경과 희생이 있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의 북한선교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과 선배들이 추구했던 복음은 다

른 것일까? 그 답은 당연히 “아니요”이다. 복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이해와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물론 선교현장에 도사리는 위험을 간과하고 무모하거나 극단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위험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서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위협과 도전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안전한 선교의 방법을 탐색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는 결정도 필요하다.

북한 선교를 통일의 장애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하여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다가올 통일이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킬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에게 통일은 단순한 체제 통합이 아닌 민족 복음화의 사명과 맞닿아 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정책, 특별히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긍정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닌 북한이 그러한 방향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NGO들, 또 기독교 비즈니스들이 북한에 들어가 활동해야 한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오랜 기간 악마화 되었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북한 당국이 싫어하고 경계하는 점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

서 북한 당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 선교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로 통일이라는 용어가 북한 선교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통일”이 일반적으로 남북 간의 체제 통합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그 안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나 이슈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순수한 선교 활동이 통일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때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선교 뿐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나설 때에도 통일을 위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속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지 괜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개념이 주는 한계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박해지역이며 선교 지역이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매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고 북한을 포함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선교를 통일 선교라 지칭하게 되면 한국 교회에게는 잘 이해될지 몰라도 세계의 다른 지역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이라는 이슈를



〈E.T. 베델, H.P. 헬버트, 아펜젤러家 등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초기 선교사들의 묘소가 안치돼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자신들의 선교지로 인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지하)교회가 소외되지 않길

남한 교회 내에서 통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또 다른 사실은 북한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 더 나아가 존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남한 교회가 민족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남한 교회의 역할과 헌신은 강조하면서 북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여러 학자들이 한국 전쟁과 북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북한의 기독교인 대부분이 피난을 오거나 순교하였고 지금은 제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없거나 국가 공인 교회뿐이라고 주장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경을 중심으로 진행된 북한선교사역의 성과를 인정하는 이들 중에도 전도를 받은 대부분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기위해 믿는 척만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은 매우 소수이며 의미 있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한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에서 나온 언급이겠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이십여 년 간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월경하였다가 돌아간 북한인들의 규모가 수백만으로 추정되고 그 중 상당수가 동포 교회나 선교사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선교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거나 미진하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통일 이후 남한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북한 내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만한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대껴온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는 이러한 의견이 연구실과 책에서 도출된, 현실과는 괴리된 주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북한 월경자들이 모두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중에는 거짓으로 믿는 척 하거나 북으로 돌아가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70년이 넘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선조로부터의 신앙을 지켜온 그루터기 신자들, 그리고 너무나 적은 신앙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진실하게 믿음을 지

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다. 극심한 박해에도 믿음을 지키며 희생한 순교자들의 소식을 듣고 있다. 통계와 연구서적에는 언급될 수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안에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그루터기 신자에 대해서 신자 출신 탈북 성도들의 증언을 비롯한 자료를 통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북한 선교에 참여하면 할수록 북한 지역의 복음화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남한 출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북한사람들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온 목회자나 교회를 환영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자기 다가온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설득력 있게 북한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자들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이 북한의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에서도 탈북민 출신 목회자를 양성하고 통일 이후 그분들이 자기 고향을 섬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시도 역시 일리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남한 교회의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시선이 같은 형제자매를 향한 것이라기보

다는 평가와 판단의 그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된 목회자나 교회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 개 중에는 상당히 단편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우려 때문일까 우리는 남한교회 내에서 이들을 진짜 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가? 수 만개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없이 인간관계 등을 이유로 출석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지 이들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녘의 신자들에 대해서도, 그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신앙 경험과 역량의 부족을 이유로 신자인지 아닌지 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필요한 신앙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일 것이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 기독교인을 30만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 숫자는 현재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된 신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탈북 난민 출신 신자들

을 포괄하는 추정치이다. 본 선교회의 추정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러한 규모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러 선교단체가 이십여 년 간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에 헌신해온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나온 선조들의 신앙을 비밀리에 간직하며 생활해온 성도들과 제 3국에서 불법 채류자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난민이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추정이 무리스럽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중에는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지만 연약하고 단편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 자료를 전달하고 각종 라디오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자 애쓰고 있다. 이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선교회의 미션이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 북한의 기독교 박해를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될 때 북녘의 형제자매들이 당한 고난과 억울함은 그들의 이슈가 아닌 하나의 한국교회로서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극심한 박해 속에 고통 받은 북녘의 형제자매들이 신원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과 북한선교, 전환점이 필요하다

유관지 목사 (북녘교회연구원 원장)



맺음말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통일이 선교 한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라 믿는다.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북한의 교회가 우리 남한 교회에게도 교훈을 줄 뿐 아니라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하나 된 한국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따라 중국, 러시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연합하여 창의적 접근지역들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전 가운데서 통일은 오히려 남한 교회를 위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픈도어선교회에는 PC to PC 라는 개념이 있다. 박해받는 교회(Persecuted Church, PC)가 또 다른 박해받는 교회를 돕는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겪었던 북한 교회의 경험과 교훈,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는 다른 세계 여러 박해받는 교회에게 큰 격려와 교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통일이 우리가 이뤄가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가올 미래라고 믿는다. 그리고 북한 선교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통일이 선교적 통일이라 믿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향한 복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본 선교회의 비전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며 한국 교회가 통일과 북한선교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취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

북의 5월과 통일

5월이 되었는데 이 5월에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다.

북한의 5월에는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일이 셋 들어있다. 하나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제의일'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김일성이 이 원칙을 제의한 날은 5월 2일이었다. 북의 『조선대백과사전』은 “조국통일 3대원칙” 항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7월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에서 제시하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원문대로 옮김) 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일'이다. 1961년 5월 13일에 결성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평통'이라는 약칭으로 남의 마스크에

도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기구이다. 조평통은 당시 부수상이었던 홍명희(洪命熹,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북의 정당 및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설립했는데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 형성과 친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대남정책에 대한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대화에도 참여하고 있다.

북은 이 달 24일을 '조국통일 5개 방침 제의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제의는 32년 전인 1990년에 있었다. 이 제의는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했는데 그가 제시한 조국통일 5개 방침은 ①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 및 평화적 환경 조성 ②남북한간 자유왕래 · 전면개방 ③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 ④조국통일을 위한 대화 발전 ⑤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이다.

이런 기념일들이 들어있는 5월에 북이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사와 행동을 할지가 궁금하다. 특히 조국통일 3대 원칙 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모습. 1999년 8월 14일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통일대축전과 제10차 범민족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통일거리에서 기공식을 했으며, 2001년 8월 14일에 준공되었다.)

의일이 그런데 그 이유는 북이 이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올해가 제의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북은 5년과 10년 단위의 해를 정주년(整週年)이라 하여 크게 기념하고 있다.

북은 2001년 8월 14일에 평양 통일거리 입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웠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방북을 했다 그 탑을 자세하게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탑의 구조와 규모를 보면서 '대단히 공을 들였구나! 이들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느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새 정부에 불만 있습니다!’

남의 5월에는 통일과 관련된 기념일이 없는 것 같다. 대신 남의 5월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달

이어서 통일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필자는 이제 막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큰 불만을 하나 가지고 있다. 새 정부 당국자들이 통일의 비전이나 방략을 만족스럽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나 인수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들에 유심히 귀를 기울여보아도 ‘통일’ 소리를 들은 기억이 많지 못해서. 아니 별로, 또는 거의 없어서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염려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었을 때 그 분이 대선 의원이고 당의 중직자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통일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은 좋았는데 통일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 면에서는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서 그 분의 경력을 열심히 검색해 보아도 주중대사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을 역임한 것 외에는 통일과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1992년 7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독일연방 법무부 파견검사를 지낸 기록이 있어서 반가웠는데 동시에 ‘아니 왜 그렇게 잠깐이었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새 장관께서 전문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분야는 만만하지가 않으니 말이다.

새 정부가 앞으로 필자의 이런 불만을 점점 더 증폭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반전을 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필자는 용산과 관계가 깊다. 용산이 본적지이고,(대통령 집무실에서 1km 이내이다) 용산을 근거지로 해서 77년 넘게 살고 있고, 용산초등·용산중·용산고를 졸업했고, 용산교회(감리)가 모교회이며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이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날을 만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놀랐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통일도 그렇게 오리라는 사실이다! 이런 깨달음을 새 정부 당국자들이 공유해주었으면 좋겠다.

새 대통령의 집무실은 북향이다. 북사면(北斜面)의 지형에 건축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다. 새 대통령께서 북쪽을 바라보며 대북정책을 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의 길 건너는 전쟁기념관이다.

새 대통령께서 전쟁기념관을 보면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시 방향으로 가까운 곳에 해방촌이 있다. 해방 직후부터 발생한 월남민들이(이들을 ‘38따라지’라고 불렀다) 남산의 나무들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하꼬방’(판잣집)을 세우기 시작해서 이뤄진 마을이다. 해방촌은 이범선의 단편소설 “오발탄”의 무대이기도 하다. 월남민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해방교회와 평북교회(현 평광교회)에서 분립한 신흥교회가 그들에 의해 그 곳에 세워졌다. 선천에 있던 기독교교육기관인 보성여중고가 이곳에 자리잡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평양의 송실중고도 여기에 있다가 1975년에 은평구 신사동으로 이전하였다.

분단 때문에 생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해방촌은 초기에 생긴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촌은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해방촌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통일, 민족을 위한 제3의 봉사’

이제 교회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교회는 통일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힘써야 한다. 교회가 통일을 위해 힘쓰는 것을 필자는 ‘민족을 위한 제3의 봉사’라고 역설하고 있다. 기독교는 이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기독교



〈서울 용산 해방촌의 모습〉

교가 이 땅에 뿌리를 빨리 내리고 확산되고 환영을 받은 것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했는데 두드러진 것 셋을 꼽으라면, 첫째는 개화이다. 초기에 교회는 최초의 현대식 교육기관, 최초의 의료기관 설립을 비롯하여 개화와 관계된 일들을 정말 많이 하였다. 한글을 주제로 한 어느 학술 모임에서 발표자가 “한글은 창제는 세종대왕이 하시고 보급은 기독교가 하였다”는 말을 했다. ‘맞는 말 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으니 반론으로 시끄럽겠구나’ 했는데 발표내용이 워낙 조리 있어서인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다. 올해는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 선양(심양)에서 한글 성경을 펴내기 시작한지 140년이 되는 해이어서 얼마 전에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이 새문안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제2의 봉사는 민족운동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삼일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꼽힌다. 삼일운동 때 3월 1일 당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전국에서 아홉 곳이었다. 그 가운데 서울과 고양 두 곳만 남한 지역이었고 나머지 일곱은 모두 북한 지역이었다. 평안북도의 의주와 선천, 평안남도의 평양, 진남포, 안주, 함경남도의 원산, 황해도의 해주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왕성했기 때문이었다. 교회를 통해서 정보가 전해지고,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그리고 당일에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만세를 부르며 중심지로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교회는 건국, 민주화와 인권운동 등 민족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하였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 민족의 제일 큰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신앙선배들이 이뤄놓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길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말을 좀 강하게 하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것 같다.

하나는 ‘통일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고 연방제, 연방제, 민족공동체 등 방법과 형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단계적 통일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는 ‘부정적 통일관’이다. ‘통일? 안 될 것이다. 되려면 벌써 됐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다. ‘통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체제와 가치관 가운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찰과 혼란이 보통이 아닐 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호가 좋다. 보라, 얼마나 좋은가?’,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은 초월적인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 초월적인 통일관이란 ‘초월적인 힘에 의해 통일이 예기치 않았던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1989년 11월9일 당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선전담당 비서인 귄터 사보브스키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사보브스키는 앞으로 “출국비자가 누구에게나 발급될 것”이라는 내각의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언제부터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이 준비돼 있지 않던 상태에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라고 답했다. 사실 출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오해한 기자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긴급뉴스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이를 본 수천 명의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의 거센 요구에 결국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뤄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월적인 통일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독일이 이미 그런 방법에 의해 통일이 되었다. 통독의 기폭제가 된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는 동독의 당 정치국원으로 제1서기였으며, 당의 공보관이었던 사보브스키의 실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봄에 서독의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독일이 언제 통일될 것 같냐고 묻자 그는 한참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이 먼저 통일될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 그가 돌아나고서 얼마 안 되어 10월에 독일은 통일되었다.

이런 초월적인 통일관을 힘써 확산시켜야 한다..

낙화가 아니라 실과를!

「북한개발소식」 이번 호의 주제는 "통일과 북한 선교"인데. 이 말을 줄이면 '통일선교'가 된다. 필자는 한국교회에 이 말이 1995년에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통일선교 사역자가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교회의 교육관을 빌려서 통일선교학교를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전에 이 말이 쓰인 사례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에 '77선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통일'은 민간에서는 쓰기가 조심스러운 말이었고, 앞에 '멸공' '북진' 이런 단어를 붙여야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실정이라서 통일선교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웠다. '77선언'의 정식 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었는데 북방개발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이 1998년부터 통일선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말은 널리 쓰이게 되었다. 통일선교대학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규모도 컸던, 한국교회의 첫 번째 통일선교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통일선교대학에서 공부한 분들은 지금도 만나면 "나는 통선대 몇 기생"이라고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본다.

통일선교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였는데 이때는 통일선교 실무자들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북한선교」라는 말 대신에 '통일선교'라는 말을 씁시다"라고 하였는데, 필자도 그렇게 말하며 이 말을 보급하기에 힘쓴 사람 가운데 하나

였다.

그 때 그렇게 주장한 큰 이유는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연합을 위해서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선교', 또는 '전도'라는 말을 쓰고, 진보진영에서는 '통일' 그리고 '평화'를 강조하였다. 통일선교라고 하면 양쪽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두 들어가 때문에 이 말을 일부러 강조했는데 의도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공감해서 적어도 보수진영에서는 이 말이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다.

통일선교라는 말에는 '북한선교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여러 방법과 형태로 북한선교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간접선교요, 준비단계의 일이다. 현지에서 직접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선교란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

"통일선교"라는 말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통일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나쳤나요?" 한 분이 있었는데 지나친 것 같다고 느껴지면서도 그 순수한 열정이 부럽기도 하였다.

분단 이후 한국교회가 해 온 통일선교운동의 시기를 구분한 작업을 한 분들이 있다. 오성훈 박사(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는 ①반공의 시기(1945년~1972년) ②분열(보수와 진보)의 시기(1972년~1988년) ③도약의 시기

(1988년~2000년) ④수렴의 시기(2000년~현재)로 구분했고, 송원근 박사(『북한종교지형변화』 저자)는 ①반공운동사역기(1960년~1970년대) ②평화운동사역기(1980년대) ③대북섬김사역기(1990년대) ④통일일꾼양성기(2000년대 전후) ⑤통일연합사역기(2010년대 전후)로 구분했다. 정성한 박사(영남신대 교수)는 ①분단형성기(해방~한국전쟁기) ②분단 고착기(한국전쟁~4월혁명) ③분단의 확대재생산기(4월혁명~유신말기) ④통일운동 형성기(5공화국~6공화국 전기) ⑤통일운동 확산기(1990년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필자는 ①방송중심기(1945년~1970년) ②조직중심기(1970년~1980년) ③통일논의 중심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④환경변화기(1990년대 중반~2000년) ⑤백화제방기(2000년~현재)로 나누었다.

이 구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2000년대 이후가 통일선교운동이 매우 왕성했던 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때를 '백화제방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르네상스기'라고 부르는 분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대를 중반을 넘기면서는 멈춰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남북관계 경색, 탈북자 감소, 대북지원 중단 등 여럿을 들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일선교 사역자들이 타성과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졌던 것을 빼놓을 수 없고 자기도취 현상에 빠졌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는 큰 타격이 되었다

지금도 통일선교운동이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개했던 꽃이 낙화가 되고 말 것이다. 낙화가 아니라 실과가 되도록 분

발하고 협력해야 할 때이다. 현장에서 절실하게,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일이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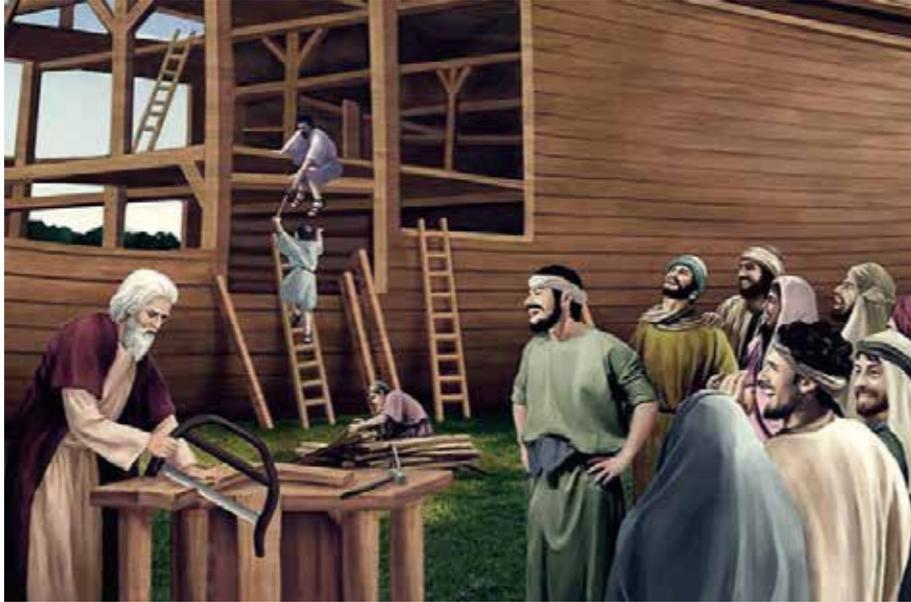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를 『표준새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로, 『공동번역』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로 번역하였다. 우리는 통일을 바라고 있다. 믿음은 통일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통일이 이뤄질 것을 보증해 준다.

아벨과 에녹에 이어 히브리서 11장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신앙 인물은 노아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7절)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해가 더 짙어졌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노아, 노망들었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는 홍수 이후를 위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였다. 우리도 통일 이후를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노아가 짐승과 새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칠

나의 정체성 - 나는 북한선교 사역자입니다.

성훈경 목사 (북방선교방송 대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오히려 다른 때보다 해가 더 짙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노아, 노망 들었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창 7:10). 그 칠 일 동안 비좁고, 어둡고, 답답하고, 노아는 참 힘들었을 것이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함께 있으니 냄새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족들도 불편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비기 정말 올 것인가?’ 하는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이다. 통일에 대해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믿고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

노아에 이어 등장하는 신앙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9),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라고 하셨다. “보여 준 땅”이 아니고 “보여 줄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갈 곳을 보여주고 떠나라고 해도 그곳이 살만한 곳인지 답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순리일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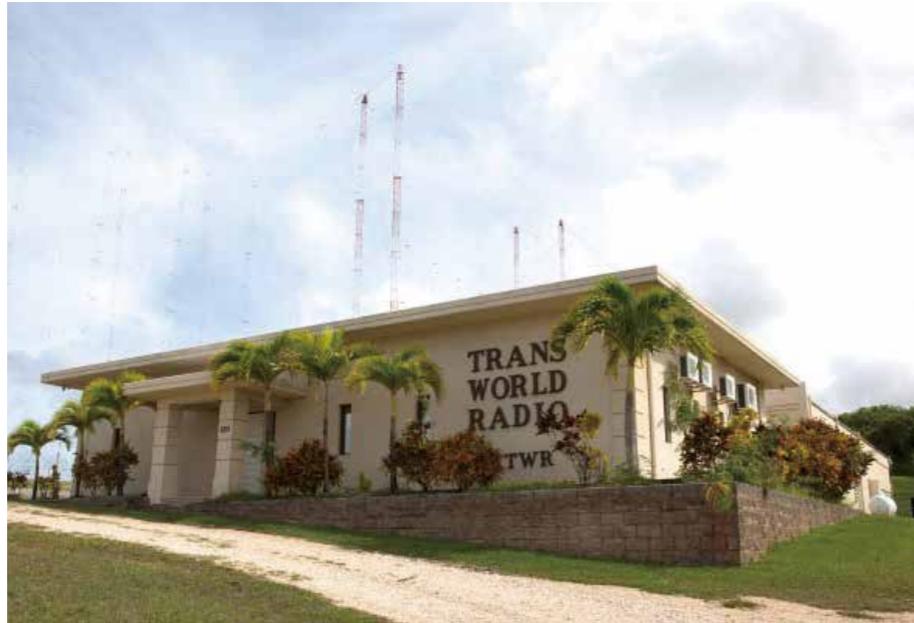
한국교회, 이 5월에 노아처럼, 통일이라는 방주를 힘써 만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뤄주실 통일을 바라보며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자! 🙏

“나는 북한선교 사역자입니다.”

저는 요즘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994년부터 미디어 사역을 하는 엔지니어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2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랄 때부터 ‘멸공’, ‘반공’,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등의 구호를 들었고, 대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을 필수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에 참가한 한 선교 단체의 여름수련회에서였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삶의 방향을 고민했고, 마지막 날 북한에 복음을 전할(북한선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준비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야 TWR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아직 어린 기술 사역자가 생각하는 ‘북한선교’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북한

선교’를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단체가 개최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선교를 하는 단체가 다수 참여하였고, 저는 제가 사역하는 TWR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TWR 북방선교방송은 단파라디오 방송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방송 선교 단체로 북한선교를 수행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나왔는데, “네, 성훈경 목사님, 통일선교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0여 분간 TWR이라는 단체의 핵심은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에 있다고 강조에 강조를 하였는데, 사회자의 말 한마디에 그것이 ‘통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회자에게 물어보았으나 정작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선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거나 의미상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저를 시대에 뒤



〈한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북한으로 보내는 TWR 광송출소 전경〉



〈TWR 북방선교방송에서 북한 성도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녹음하는 성우들〉

떨어진 사람이거나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바라 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2년부터 저를 소개할 때 ‘나는 북한선교 사역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WR 북방선교방송이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한 1995년에는 ‘북한선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수의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다양한 탈북민 관련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대북 민간사업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사회 분위기를 따라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 단체들에서 통일 관련 사업을 활기차게 펼쳤습니다.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같은 질문이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빠르면 3년, 길어도 10

년 안에는 통일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나 통일의 문이 열릴 것 같다가도 다시 닫히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선불리 이렇게 답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선교보다는 통일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저는 어리기도 하였고,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통일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에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따라다니며 듣고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통일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통일 사역자인가, 북한선교 사역자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몇 해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삶의 사명으로 삼을 만큼 통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압제 시대에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삶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통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통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통일보다는 북한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이 있는 사역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통일과 무관하게 북한선교를 수행하는 사역자입니다. 무관하다는 말은 어떤 행정체제의 국가로 통일이 되든지, 오늘 통일이 되든지, 5년 후, 10년 후에 통일이 되든지, 혹은 제가 생을 마칠 때까지 통일이 되지 않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북한선교를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저

의 정직한 마음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 북한선교보다 통일선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 사람들은 ‘통일선교’라는 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선교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는 나라의 분단 문제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통일과 관련된 특정한 영역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킬 것이기에 통일은 곧 선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영역선교의 관점에서 통일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최종 목표는 영토와 제도의 통일이 됩니다. 저는 이 경우에는 ‘통일선교’보다 ‘복음적 통일’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과 선교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일’과 ‘선교’가 각각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통일의 중요한 이유가 선교를 위한 것이거나, 통일이 되어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와 반대로 통일의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화해, 사랑의 실천 즉, 통일을 위해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설득력이 있지만, 비기독교인도 함께하기

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선교, 선교를 위한 통일’의 의미로는 기독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일선교’보다는 ‘통일과 선교’가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선교’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의미를 새겨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는 뜻으로 ‘북한선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통일선교’보다는 ‘북한선교’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이가 ‘통일선교’를 말하며 ‘북한선교’ 즉,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를 담을지라도, 듣는 이가 땅과 제도의 통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의 의도와 다르



게 이해된다면 그것은 적절한 용어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또는 방송 사역자로서 뜻하는 바를 듣는 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통일과 북한선교라는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북한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북한선교에서 북한은 지리적으로 북한 영토를 의미하며 동시에 선교의 대상 지역이 됩니다. 또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북한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과 그 후손을 의미합니다. 북한 주민, 탈북자, 탈북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모두 포함하여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선교는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여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교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할수록 사역자는 사역의 방향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선교는 다시 북한 내지 선교, 해외 탈북자 선교, 국내 탈북민 선교, 탈북민 자녀 선교 등으로 세분화해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북한선교를 정의한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북한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일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

게 만들거나 내용을 흐리는 일을 경계하기 위해 저는 좁은 정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통일’, ‘복음적 통일’, ‘통일과 선교’, ‘북한선교’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명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반도가 둘로 나뉘는 그 순간부터 북한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잠시도 북한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북한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北中 국경에서 바라본 통일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들어가며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래 지금까지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고 있고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 갈등까지 더하면서 통일이라는 말은 어느덧 우리에게 진부한 개념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한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향으로 통일은 언제부터인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이상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 대신 힘의 균형을 통한 반쪽 평화라도 깨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보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평화지만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통일은 막연한 환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이 아니라면 별로 관심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는 일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통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관심보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경에서 느낀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 북한선교와의 상관관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통일의 소망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다양한 북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 무겁고 어두운 소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소식들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지만 처음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통



(2015년 1월 30일 밤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촬영한 사진. 불빛이 환한 남한(오른쪽 아래)과 중국 동북삼성(왼쪽 위) 사이 북한 지역은 평양(가운데 밝은 점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검게 나타나 있다.)

일되었다면 적어도 이런 소식은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북한 선교 현장 사역은 주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끔 밤에 국경을 바라보면 국경을 중심으로 양극화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밤새 커지지 않는 화려한 조명을 밝히며 경제성장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북한 국경은 정전된 암흑도시처럼 어둡고 적막합니다. 멀리 보이는 몇 개의 희미한 불빛은 마치 북한의 위태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북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북중 국경지역은 인적, 물적 왕래가 잦은 곳

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북한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이 국경 지역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면 서로에게 있던 팽팽한 긴장감은 점점 아쉬움으로 변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시요” 통명스럽게 내뱉은 말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중국에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빌론 유수를 묘사한 작품 “포로들의 대이동”, 제임스 티소 (1836-1902)〉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 분들에게 가끔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현재 그분들의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싶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하루속히 통일되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통일의 근거

우리가 통일을 소망하는 근거는 성경입니

다.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분열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와 권력과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전 926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키십니다(왕상 11:10-13). 이는 하나님의 징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후대에 왕이 지켜야 할 조건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신 16:14~19). 하지만 솔로몬은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솔로몬은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 공주와 정략결혼을 통해 수많은 이방 신들이 유입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전쟁 도구인 병거를 대규모로 수

입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후궁과 첩을 들이고, 창고에 엄청난 은금을 쌓았습니다(왕상 3:1;10:29).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처럼 분열되고 전쟁을 겪으며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호 11:8~11).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식민지가 되어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이지만 심판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한 회복의 역사입니다(사 14:1-2, 렘 33:7-9, 겔 11:14-21).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분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실 것은 확신합니다. 이념 차이로 인해 갈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냉전 시대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듯 보였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냉전시대 이념 갈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역시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북한은 1당 지

배체제로 모든 정부 기관과 조직은 최고 영도자와 당의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복수 정당제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각기 상반되는 체제 속에서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각 체제 속에서 사고체계가 형성되고 굳어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리적인 통일보다 남남갈등, 남북갈등 등 이념적 화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념 차이를 확연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불명확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만약 지금 통일이 된다면 이념 차이는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희수가 늘어나면서 복음으로 이념 갈등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은 사람을 온전히 연합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복음은 양극단의 이념조차도 초월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고후 10:4~5).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교는 이념 차이를 최소화시켜 주는 중요한 사역이며 통일의 밑거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

시대가 급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통일에 대해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손익계산을 근거로 명분을 내세웁니다. 어드레시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필요한 연구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이지만 적어도 교회만큼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상과 다른 성경적 관점에서 통일을 말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통일은 단순히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복음통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본성, 즉 사랑에서 비롯됩니다(요일 4:16).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한반도 남북한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딤후 2:5, 벴후 3:9). 단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교회는 설령 통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통일 이후의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가 통일을 기대하며 통일 이후 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름대로 북한의 회복과 복음

전도를 위해 사역을 구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으니 통일 사역은 점점 탁상공론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생기는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먼저 하나 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통일의 전제조건은 가능한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 내부에서 다른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중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접하는 경우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방법 모두 신변의 위협을 각오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고전 1:21).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의 방법론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과 국경 현장에서 북한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지 선교사역 영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사역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북

한 선교사역이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선교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가장 큰 마음은 긍휼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호 1:7, 딛 3:5). 하지만 긍휼함만으로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간혹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냐고 반문하면 변론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눅 9:23, 고전 1:18).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유익함을 주시고(시 119:71), 인내를 통해 소망을 품게 하시며(롬 5:4),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벴전 4:12-14).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북한 성도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연민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일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중대한 과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한반도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엡 2:14).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통일의 열망을 닮아 선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약 300만 명에 가까운 동독 사람들은 자유를 열망하며 서독으로 이주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1954년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 가족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은 정치인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카스너 목사에게 동독에 버려진 많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주셨고, 카스너 목사는 순종하고 공산 치하로 들어가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북,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전술핵 탑재 가능 언급에 주목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한 무기에 대해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외형상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한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전술핵폭탄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유도무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에 속한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포착됐다. 개성 인근에서 발사하면 총북 이남 지역까지의 군부대 등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사거리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 수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목표를 제시한 이후 관련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며 대남 핵 위협을 실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최초 탐지한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14시간 가까이 지난 뒤인 이날 오전 발사 사실을 공지했다. 그것도 북한 매체 보도(오전 6시)가 나오자 1시간 46분 후에 이를 확인해주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군은 해당 지적에 대해 정밀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해명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운데)와 아버지 카스너 목사와 어머니〉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요 12:24). 우리는 억눌린 영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신 15:8, 롬 12:15, 빌 4:11~13). 통일된 한반도는 더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교훈삼아 전 세계 억눌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역에 앞장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

남북정상 친서… 文“대화로 대결 넘어야” 金“노력하면 관계발전”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친서교환 사실을 밝혔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새벽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월 20일 보낸 친서에서 남북대화가 희망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쉬운 순간들과 벽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미 대화 중단 및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 등과 관련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도발을 중단하라'고 명확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도발 자체를 당부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평양 9·19 선언 등이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평화의 동력이 되살아날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며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월 21일 보낸 답신에서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남수뇌(남북정상)가 역

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제껏 기울여 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 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애쓴 문 대통령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잊지 않겠다.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친서 교환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대화는 깊은 신뢰 속에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역시 남북정상의 친서 교환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남북 정상은 김 위원장이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친서를 교환해왔다.

(참고: 연합뉴스, 4월 22일) 

북한 금강산 골프장 건물 사라져… 남측시설 철거 계속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금강산 골프장 건물 철거 모습〉

북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이 상당 부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난티 골프장의 리조트 단지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 단지는 중심부 건물 및 그 좌우와 뒤쪽으로 배치된 8개 건물로 이뤄졌는데 9일까지 위성으로 포착됐던 중심부 건물이 10일에는 사라졌다. 중심부 건물 북쪽의 2개 동은 11일에는 건물 일부만 남긴 모습이었고, 나머지 6개 동은 지붕 색깔이 달라지고 원래의 직사각형에서 모양이 변했다.

아난티 골프장은 국내 리조트기업 아난티가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한 대지 168만5천㎡(51만 평)를 50년간 재임대해 세운 시설이다. 2008년 5월 개장했지만 2개월 후 발생한 박왕자 씨 피

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아난티 측은 미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골프장(18홀)과 리조트(96실) 등 해당 시설의 자산 507억 원을 손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철거를

진행한 해금강 호텔은 현재 사실상 건물의 형태가 남지 않을 정도로 작업이 진행됐다. 플래닛랩스의 11일 사진에서 해금강 호텔 건물 양쪽에 남았던 지지 구조물이 상당 부분 사라졌고, 건물 중심부는 하층 지지 부위만 남은 듯 어두운 색상을 띄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약 2년 5개월 후인 지난달 6일부터 해금강호텔의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참고: 연합뉴스, 4월 13일) 

선교사 흔적 없애고 공로 왜곡... 북한의 기독교 지우기



2009년 12월 평양외국인학교 전경



최근 조성된 평양 보통강변 일대의 고급주택구역 '경루동' 전경

선교사들의 흔적을 지우고 공로를 왜곡하는 등 북한 정권의 '기독교 지우기'가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몰래 예배를 드리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박해도 심해지고 있다. 외국 선교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보통강변에 조성한 고급주택구역인 '경루동'을 완공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 주택구역은 평양외국인학교(PYFS)가 있었던 자리라는 증언이 나왔다.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VOA에 “평양 경루동 고급 주택구역의 위치는 옛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했던 평양외국인학교가 있던 자리”라며 “2년 전까지 보존됐던 이 역사적인 건물 일부와 부지가 주택 건설로 영원히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브라운 교수의 외조부와 부모는 과거 한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특히 호남신학대 설립자인 아버지 조지 톰슨 브라운 선교사와 어머니 메리 하퍼 브라운 선교사 모두 평양외국인학교 출신이다. 1900년 문을 연 평양외국인학교는 1940년 폐교될 때까지 동아시아에 파송된 서구 선교사 자녀들이 유학했던 기숙학교였다. 예수원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를 비롯해 세계적인 복음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도 이 학교 출신이다.

앞서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월 25일 ‘선교사의 탈을 쓴 승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야수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다”는 내용의 비난성 글을 게재했다. 또 오픈도어스USA는 북한에서 비밀 예배에 참여했던 지하교인 수십 명이 최근 체포돼 처형됐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참고: 국민일보, 4월 12일) ☞

북, '탈북자 가족' 전수 조사... 농촌으로 강제 추방했다



〈탈북자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노동신문, 2020.07.14.)〉

조선일보는 3월 31일 대북소식통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노동당 8기 4차전원회의 직후인 올해 초부터 탈북자 및 행불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 탈북자 가족을 색출해 삼수·갑산·풍산 등 농촌지역으로 추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 출신 탈북자 김금철(가명)씨는 “해산 시내에 살던 저의 가족이 남한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난 2월 집을 뺏기고, 노인과 어린이까지 모두 삼수군 농촌으로 추방됐다”며 “해산에 살던 다른 탈북자 가족은 보천군 농촌으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 탈북자 전금자(가명)씨는 “작

년 말 북한에 있는 오빠에게 돈을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돼 다른 선을 통해 알아보니 올해 1월 가족 모두 농촌으로 추방됐다는 얘길 들었다”고 전했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 탈북자 오성은(가명)씨는 “한국 입국 후 계속 연락해오던 동생과 최근 연락이 두절돼 알아보니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추방됐다는 얘길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탈북자 가족’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강제추방 등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이들이 북한 내부에 외부 사상과 문물을 유입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라산 줄기’로 불리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조선일보, 3월 31일) ☞

미 재무부 “게임 ‘액시 인피니티’ 암호화폐 도난, 북한 연루”

4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액시 인피니티 암호화폐 도난 사건에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첩보기관인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이다. 라자루스가 2017~2020년 해킹을 통해 훔친 암호화폐 규모는 약 17억5000만달러(한화 약 2조

1500억원)로 추정된다. 3월 23일 발생한 이번 해킹으로 인해 도난당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17만3600개와 스테이블 코인 USDC 2550만개다. 시가로는 5억4000만달러(약 6600억원)에 달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도난 사건으로 기록됐다. 역대 최대 규모는 작년 8월 암호화폐 기업 폴리네트워크에서 약 6억1100만달러(약 7200억원)어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도난된 것이다. (참고: 이데일리, 4월 15일) 

2022년 1분기(1-3월) 국내입국 탈북민 총 11명

올해 1분기(1~3월)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남성 2명과 여성 9명 등 총 11명이라고 통일부가 4월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남성 40명, 여성 23명 등 총 63명이었고 분기별로는 1분기부터 각 31명, 5명, 12명, 15명이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통상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으로 입국 인원이 줄고 있다. 최근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대부분 북중 국경 봉쇄 이전에 북한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2~2020년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2009년 2천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 1천127명, 2018년 1천137명, 2019년 1천47명을 기록하다가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난 2020년 229명으로 급감했다. (참고: 연합뉴스, 4월 15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여성, 변화를 이끈다
 저자: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강혜석 외.
 출판사: 도서출판 선인
 발행일: 2021년 3월 5일
 가격: 22,000원

《북한여성, 변화를 이끈다》는 여성학자들 만의 북한논의도, 북한학자들 만의 여성논의도 아닌, 두 영역 학자들의 논문을 모아 놓은 넓은 의미에서의 학제 간 융합연구서이다. 최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와 이대남, 이대녀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남녀 갈등 국면에서 젠더이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 책은 북한과 여성이라는 이시대의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화두를 동시에 다룬다. 이 책의 여는 글 ‘북한사회에서 젠더연구의 의미’에서는 젠더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며 젠더문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젠더’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차와 구별되는 개념이

라거나 여성성/남성성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저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젠더를 둘러싼 개념에 대한 논의와 작업은 복잡한 논의의 지형을 갖는데, 분명한 것은 젠더 개념에 대한 논의의 이유가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특정한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정체화되고 명명되며, 그로 인해 권력관계를 유지-지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있다.”(19쪽)라고 설명한다. 이어 여는 글에서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조안 스콧(Joan W. Scott), 코넬(R. W. Connell)등 저명한 여성학자들의 젠더관련 개념과 주장들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책의 본문은 기존 북한 연구에서 진행된 젠더연구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이라는 인식에 머

무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저자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이 어떻게 사회화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변화된 성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젠더는 사회적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 때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협상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1쪽) 저자는 젠더라는 렌즈로 북한사회를 탐구하는 것이 북한사회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의 몇몇 논문들은 북한의 여성문제 자체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여성문제를 통해 북한사회 자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 책은 총 8개의 논문이 여는 글과 총 3부의 각 장을 구성한다. 1부에서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장 북한 민족주의 부상과정에서 여성이 민족재생산자로서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을 검토했고, 2장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북한 당국의 젠더정치 등 북한의 체제 유지와 여성이 동원되는 방식을 다루었다. 2부 1장에서는 주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통치방편으로 활용한 영웅 정치 중 여성 영웅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 2장에서는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을 토대로 동기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했다. 3부에서는 북한 여성의 의식 변화에 주목한다. 1장에서 가족 해체 및 그로 인한 북한 여성과 아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2장에서는 의료 보건 분야에 나타나는 여성의 지위 변화를 3장에서는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본 여성의 주체적 삶의 변모양상을 살펴본다.

북한의 여성연구에 있어 김정일의 모친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으로부터 시작하는 여성상

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여기에 더하여 문학작품과 북한영화에 나타나는 여성상의 변화와 젠더정치, 모성영웅, 탈북과 인권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이 책 역시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보이는 몇몇 글들이 있다. 특히 여는 글은 독자들에게 젠더연구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북한사회에 대한 젠더 접근의 지점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다.

또한 2부의 2장 ‘김여정의 대남-대미 담화를 중심으로 본 동기 이미지와 리더십’도 기존 강반석, 김정숙으로부터 이설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여성상 연구에서 탈피하여 김여정이라는 예외자(outlier)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장에서는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와 같은 인물이 동시에 다루어질 법도 하지만 오히려 김여정의 통치조직에 집중하여 그의 역할 대남-대미담화의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여성성을 분석한다.

이 책의 3부 3장 ‘섹슈얼리티와 북한여성의 주체적 삶의 변모양상’은 북한의 가정문제나 여성문제에서 거의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북한 부부의 성문화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룬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이 책의 출간 이후로 통일연구원에 의해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여성과 섹슈얼리티”라는 연구가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논문이 다루는 수많은 사례들에 따르면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떠맡게 되자,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남편의 성관계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했던 과거와 달리 차츰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



〈2020년 9월 5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한 장마당에서 여성들이 모여 있는 모습. 북한 체제의 특성상 장마당 활동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교도 연합통신, 한국일보 재인용)〉

기 시작한 북한 여성들의 사례들, 그리고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외 성관계와 동거의 인식변화들을 분석한다. 저자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북한사회에서 남성 중심적 성문화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저자가 말한 젠더문제를 통하여 북한사회 자체에 일어나는 변화의 예이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중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특히 지난 10년은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조명을 받은 시기이다.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많은 탈북여성들이 조명되었고 여러 유튜브 채널과 탈북 여성 유튜브 버들에 의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책의 장점은 어떠한 사실을 정리하며, 정제된 언어로 전하는 데에 있다. 연구자들은 출판된 책을

선호하며 영상자료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리되고 검증된 내용을 얻기 위해 책과 논문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영상의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 책이 갖는 의미이다. 《북한여성, 변화를 이끌다》는 학술서적답게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북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저자는 북한의 여성문제 자체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여성문제를 통해 북한사회 자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고, 젠더라는 렌즈로 북한사회를 탐구하는 것이 북한사회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저자가 제공하는 정리된 정보를 통해 북한의 여성상과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 1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북한은 잦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과 ICBM 관련 활동과 언급이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분단의 현실 속에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분단이 종식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분단이 종식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단순히 체제 통합이 아닌 정의와 평화가 하수같이 흐르는 복된 통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한국교회에게 민족 복음화 뿐 아니라 열방에 큰 축복이 되는 교회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선교-통일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북한선교를 넘어 통일을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가인 북한선교를 위해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일과 한반도의 복음통일은 모든 헌신자들이 함께하는 기도제목입니다. 전 세계 북한선교 헌신자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사역자들이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도록 기도 합니다.
-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되어 수십 명이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은 3월 25일 '선교사의 탈을 쓴 승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야수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다"는 내용의 비난성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정권의 반기독교 정책이 힘을 잃기를, 북한의 성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의 안전과 수용소로 보내진 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잘 견디고 어서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성도를 처벌할 경우 대부분 죄목에는 종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처벌하면 주민들로 종교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갖게 할 수 있고, '반국가', '정치' 관련 죄목으로도 충분히 신앙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과 관련된 정보 또한 교차확인(cross checking)이 가능한 정보가 있고 불가능한 정보가 있습니다. 북한사회의 폐쇄적 특성상 종교관련 처벌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은 당사자와 직접 연계 없이는 검증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선교 전문가들이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또한 교회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북한선교기관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해주시고.
- 5 2월말 중국내 코로나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되었고 3월부터 강력한 봉쇄가 이어진 지역 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워드 코로나가 아닌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쇄가 해제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봉쇄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이들 지역 중 북한선교에 중요한 현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과도 물적 왕래는 재개되었지만 인적왕래는 아직까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고 북한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5월 21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새로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통일을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이념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에 건강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도록 기도합니다.
- 7 북한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경은 봉쇄되었지만 복음을 실은 전파는 북녘을 향해 매일 밤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현지로부터 라디오 선교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

도들과 북한의 주민들이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송출을 위해 수고하며 협력하는 관련 기관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주시도록,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8 오픈도어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4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를 돕고 북한선교 일꾼 발굴을 위한 북한선교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학교의 강사들과 진행자들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또한 본 선교회에서는 현장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에 적합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요.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4월 29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문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2022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선교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북한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2년 4월 26일 - 7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14강)

■ **장소:** 온라인 진행, 오프라인 강의 참석 가능
(HR에듀센터 강의실 /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50(방배2동 440-7) 대일빌딩 4층)

■ 강의 내용 (예정)

Part1: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접근

날짜	주 제	강 사
4/26	북한의 사상에 대한 성경적 접근	정종기 목사 (고신총회통일선교회 원장)
5/3	북한의 당과 군, 그리고 통제체제	심주일 목사 (창조교회 담임)
5/10	북한의 장마당 경제와 사회변화	최경희 박사 (사단법인 SAND연구소장)
5/17	북한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유관지 목사 (북녘교회연구원장)
5/24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강 디모데 전도사 (엔케이퍼플선교회 대표)
5/3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 증언	김은진 사모 (뉴코리아 교회)
6/7	국제협력력을 통한 북한선교	정바나바 선교사 (국제CCC 시니어 간사)
6/14	해외 북한 동포와 선교	강동완 교수 (동아대, 강동완TV 대표)

Part2: 북한 선교의 현장

날짜	주 제	강 사
6/21	북한 선교 현장 개론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6/28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성훈경 목사 (북방선교방송 대표)
7/5	북한 식량사태와 복음의 전도	김영길 목사 (NKCL 북한크리스천살리기운동 대표)
7/12	해외 북한 여성 사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7/19	북한선교 전방 사역	
7/26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 선교	

■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info@opendoors.or.kr)